



삼국유사 인물학 유행(遊行)

김유신이 흥무대왕으로 추존된 까닭은?

삼국통일 공로 인정 사후 '武' 존재감 부각

1. '삼국통일'의 주역

우리 민족은 자나 깨나 '남북통일'이란 화두를 들고 있다. 이 화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한결같이 또렷 또렷(惺惺)하고 고요고요(寂寂)해야만 타과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남북 분열로 가라앉아(昏沈) 있고 남남 분열로 떠들(擘擘) 있다. 과연 남한과 북한은 어떻게 통합하고 통일해야 할 것인가. 신라는 과거 사국 혹은 삼국의 분립시대에서 가야와 백제와 고구려를 통일하여 '한민족의 원형'을 열었다. 그리하여 고조선 해체 이래 신라의 삼국 통일을 통해 한민족이라는 민족적 연대감을 최초로 확보하였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사국 또는 삼국이 통일되던 역순으로 나뉘져 있지 않은지 반문해 보게 된다. 단지 '총선'과 '대선' 때문에 일시적으로 분립되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저 고대의 사국 또는 삼국의 분립시대 이래 그렇게 되어온 것일까.

우리는 일제로부터 민족의 해방을 자력으로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남북이 분단되었고 6.25가 일어났다. 그 결과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분열의 시대를 경험해 오고 있다. 과연 이 분열을 끝내고 통합의 시대를 앞당길 수는 없을까. 어떠한 지혜를 발휘하여 민족의 통합을 앞당길 수 있을까. 지금 우리에게 김유신과 같은 통일의 주인공이 필요하고, 원효와 같은 통합의 사상가가 필요하며, 김춘추와 같은 외교가와 문무왕과 같은 지혜로운 군주가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왕건과 같은 통치자, 도선과 같은 사상가, 일연과 같은 역사가가 요청되는 것이다. 그들 같은 지도자와 사상가가 역사가가 우리에게 준비되고 있는가 되묻게 된다. 바로 이러한 점에

의 3권(열전 1~3)에 걸쳐 실고 있다. 이것은 다른 인물들(50인) 모두를 합친 것보다 많은 분량이며 또 어떤 제왕보다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경주 김씨인 김부식은 김해 김씨인 김유신을 특별히 높여야 할 까닭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삼국사기』에서 김유신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대국(중국)과 유교사관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지만 김유신에 대한 기록 등에서처럼 자주적 사관을 견지하려고 애쓴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은 주목해야할 점이다.

2. 토착신앙에서 불교신앙으로

진흥왕은 청소년 수양단체인 원화(源花)를 두어 국가의 미래를 기약했다. 하지만 아름다운(美) 소녀들 300여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주로 '제사'를 담당했다. 하루는 원화 교/준정낭이 남모(南毛) 낭을 시샘하여 죽인 것이 탄소가 나서 왕은 교정을 죽이고 원화제를 폐지해 버렸다. 여러 해 뒤 진흥왕은 나라를 흥성하려면 반드시 풍월도를 먼저 일으켜야 한다고 결심하고 '오리지날 화랑'인 '원화'에 이어 (美)소년으로 구성된 풍월도를 시설했고 여기에 소속된 화랑들은 심신 수양을 목표로 했으나 점차 '전쟁'을 담당했다. 이들은 시조묘(始祖廟)에 사철마다 제사를 지내고[四時祭之] 하늘과 땅 및 산과 물[龍] 등의 신들에게 기도를 드리며 토착신앙을 이어나갔다.

김유신은 15세에 화랑이 되었고 17세는 용화랑도가 된 뒤 단석산 석굴 속에 들어가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유신은 토착신앙



살아서나 죽어서나 신라의 대들보이자 수호신이 된 김유신을 신라왕실은 사후에 흥무대왕으로 추대했다. 사진은 김유신 영정

받기까지 하였다.

또 소정방이 신라 독군(督軍) 김문영(金文穎)이 늦게 왔다는 이유를 들어 군문 앞에서 목을 베려 하자 김유신이 여러 사람에게 말하기를 "대장군이 황산의 싸움을 보지 못하고 늦게 왔다고 죄를 주려는 모양이나, 나는 결코 죄없이 목을 받을 수 없다. 반드시 당군과 먼저 싸움을 결정한 다음에 백제를 부수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자 소정방이 마침내 김문영의 죄를 묻지 않게 되었다. 일찍이 화랑이 된 뒤 용화랑도로 편입되어 국선에 올랐던 그는 여러 전장에서 공을 세워 높은 지위에 나아갔다. 진평왕과 선덕여왕을 거쳐 진덕왕 때에는 최초이자 최후인 '태대각간'에 올랐으며, 뒤에는 상대등에까지 올랐다. 김유신은 김춘추와 정치적 동반자가 되어 평생을 신라의 통일대업에 헌신하였다.

금관가야의 말방이었던 그의 증조부 구해(仇亥)는 신라에 나라를 바치고 귀부하였다. 그의 아들 무력(武力)과 그 아들 서현(舒玄)은 큰 공을 세워 어렵게 진골 귀족으로 편입되었고 김유신은 신라 중심의 삼국 통일의 주역이 되었다. 그의 둘째 누이인 문희와 첫째 누이 보희는 모두 태종 무열왕에게 시집을 갔으므로 왕에게 그는 처남이 되었다. 그리고 태종왕의 셋째 딸인 지소(智炤)와 결혼함으로써 왕의 사위가 되었다. 이처럼 김춘추와 피로 맺은 혈맹에 의해 가야계인 김유신은 온전한 가야계 '신라인'이 되었다. 그의 동생인 흡순(歙純)과 그의 사위인 인문도 신라의 통일대업에 동참했으며 그의 아들 다섯 형제와 딸 넷 모두 헌신하였다. 김유신이 죽자 그의 아내 지소부인은 머리를 깎고 베옷을 입고 비구니가 되었다.

사후 162년 흥덕왕에 의해 '흥무대왕' 추대 왕 아님이 '대왕'으로 추존된 유일한 예

삼국 분열의 시대에선 '통합'이 제일 의제 <삼국사기> 김유신 어떤 제왕보다 자세히 기술

김유신 제사 지내며 토착신앙과 관계 천관녀 기리기 위해 천관사 지어줘

서 가야출신이었다던 김유신의 증조부(仇亥)가 사국 중 가장 약소국이었다던 신라에 귀부한 이래 그 증손인 김유신이 삼국통합의 주역이 되었다는 것은 많은 것을 남북 통일 과정에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과연 우리는 남북의 분단을 겪고 있는 지금 '삼국통일'의 주역이었던 김유신에게서 어떤 지혜를 배울 수 있을까.

분열의 시대에는 '통합'이 제일 의제(擬制)가 된다. 통합은 물리적인 통일과 달리 화학적인 융섭을 의미한다. 해서 물리적 '통일'과 화학적 '통합'은 우리 민족의 제1의 화두라 할 수 있다. 남북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 정치적 물리적 통일이 요청된다. 그리고 '한민족'이라는 정신적 화학적 통합이 요망된다. 정신적 화학적 통합은 두 개 이상의 정치적 물리적 분리의 일통을 의미하는 '통일'과는 변별된다. 문제는 물리적 통일 이후에 화학적 통합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화학적 통합 이후에 물리적 통일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아니면 통합과 통일을 동시에 해야 하는가. 통일과 통합을 동시적 또는 순차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지혜는 살아서는 삼한 일통을, 죽어서는 삼한 통합을 위해 헌신한 김유신(595)에게서 배우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만일 당시의 백제가 일본이고 고구려가 중국이고 러시아가 가자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또다시 바다 건너 미국의 힘을 빌려야 될 것인가.

김유신은 삼국통일의 주역이다. 중국 정사인 진수(陳壽)의 『삼국지』(三國志)에는 조조와 제갈량이 주인공으로 되어 있다. 진수는 조조(曹操)에게 정통성을 부여하고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정밀하고 자세하게 기술했다. 반면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에는 유비와 관우와 장비와 조조가 주인공이다.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김유신 전(傳)에 많은 부분(41~50권)을 할애했다. 그는 삼국시대 인물 51인을 다룬 전(傳)에서 김유신의 '열전' (列傳)을 상중하

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이후 불교의 난승(難勝) 노인(보살)을 만나 비법(秘法)을 전수받은 뒤 18세에는 국선(國仙)이 되어 용화랑도를 이끌었다. 당시 신라 왕궁인 월성 남쪽의 도당산(陶堂山) 주위에는 사령지(四靈地)가 있었다. 신라 왕들은 즉위한 다음 해에 이곳 영지의 신궁(神宮)에서 즉위례(即位儀禮)를 거행하였다. 귀족들은 이곳에서 정사를 논의하면서 도당정지를 펼쳤다. 김유신이 국선(國仙)이었을 때 화랑도에 속해 있던 고구려 첩자 백석(白石)이 그를 고구려 정세를 살펴본다며 유언해가자 내림(奈林, 경주 남산)과 혈례(穴禮, 영천 금강산)와 골화(骨火, 경주 烏山) 등 세 곳의 호국신들이 나타나 위급을 알려주었다.

이들 호국신의 도움에 의해 사로잡은 백석은 김유신의 전생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백석은 고구려 국경에 물이 역류하는 까닭은 고구려 선비 추남(攄南)이 고구려 대왕의 부인이 음양의 도(陰陽之道)를 역행한 징조 때문이라고 점을 쳤다. 이 때문에 그는 왕비의 노여움을 샀다. 왕비가 함 속에 쥐 한 마리를 감추고 '이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물어보며 틀리면 중형을 가하겠다고 하였다. 추남이 '쥐 여덟 마리가 있다'고 맞추자 말이 틀린다'며 그를 죽이려 하자 그가 '내가 죽은 뒤 반드시 고구려를 멸망시킬 것'이라 맹세하였다. 왕의 꿈에 그가 신라의 서현공 부인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군신들에게 알리자 '과연 그렇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에 김유신은 백석을 을 죽인 뒤 온갖 음식을 갖추고 세 신에게 제사를 지내자 신들이 모습을 드러내 제사를 받았다. 이 일화는 김유신이 토착신앙과 긴밀한 관계 속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젊은 시절 토착신앙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김유신은 도당산 주위의 영지에 드러나면서 제사를 담당하던 한 여사제[天官女]를 사랑하게 되었다. 중국 주나라의 6관(天·地·春·夏·

秋·冬官)제 의하면 천관은 하늘에 제사를 주관하는 부서였고 그녀는 여사제(女司祭)였다. 하지만 가야계 후예로서 공을 세워 진골 귀족에게 새로 편입된 아버지(서현)와 결혼(김부식은 '野合'이라 기록)하여 갖은 어려움을 겪은 어머니 만명(萬明)의 간청으로 김유신은 천관녀와 헤어지기로 결심하였다. 어느 날 잠든 사이에 애마가 성지(聖地) 도당산의 천관녀 처소에 이르자 그는 말의 목을 베고 그녀와의 인연을 끊었다. 결국 토착신앙을 담지하는 여사제[天官]된 신부 때문에 김유신에게 버림을 받은 천관녀는 머리를 깎고 김유신을 위해 평생 기도를 하며 삶을 마감하였다. 훗날 김유신은 그녀를 기리기 위해 그녀가 머물던 곳에 천관사(天官寺)를 지었다.

3. '흥무대왕'의 추존

선덕여왕 재위 16년에 일어난 비담(毗曇)과 염종(廉宗) 등이 여왕이 정치를 잘못한다 하여 반역을 도모하였다. 어느 날 한밤중에 큰 별이 떨어지자 비담 등이 병사들에게 여왕이 패왕 징조라고 병졸들에게 알렸다. 이에 김유신은 허수아비 속에 불씨를 넣어 풍운(風雲)을 만들어 하늘에 올라가게 하였다. 이튿날 사람을 시켜 '어젯밤에 떨어진 별이 도로 올라갔다'고 퍼뜨리게 하였다. 결국 적군으로 하여금 의심이 생기게 하여 위기를 역전시킨 뒤 난을 제압하였다. 그리고 김춘추와 연합하여 진덕여왕을 세운 뒤 다시 알천 등과 타협하여 김춘추를 무열왕에 옹립하였다. 김춘추가 '태종'이라 일컫는 것을 당 고종이 문제를 삼자 신라왕은 '신라가 비록 작은 나라이나 성스러운 신하 김유신을 얻어 삼국을 통일하였으며 또 태종이라 불하였다'고 표문을 보냈다. 당 고종이 태자시절에 하늘에서 "33천의 한 사람으로 신라에 내려왔으니 그가 바로 유신이다"고 들었던 노래가 생각나 태종 칭호를 고쳐지 말도록 허락을

김유신은 보통사람과 달리 살아서는 하늘과 신령과 교통하면서 삼국 통일을 위해 헌신하였고 죽어서는 신라의 호국 신령이 되었다. 김유신이 '흥무대왕'으로 추존된 까닭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모두 기록하고 있다.

김유신 사후 100년 쯤인 신라 혜공왕 때 한밤중에 괴성이 울려 퍼졌다. "내가 삼국을 통일하고 신라에 온갖 충성을 다 바쳤는데 신라 왕가는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며 그는 신라를 떠나려고 하였다. 이에 놀란 신라 왕실은 제사를 올려 김유신을 위로하고 그 묘역을 관리하는데 쓰이는 토지를 열배 가까이 늘렸다. 그 때문일까, 김유신은 신라를 떠나지 않았다. 김유신은 사후 162년이 지난 흥덕왕(興德王, 835; 일연은 景明王(914-923)대)로 기록)에 의해 '흥무대왕'(興武大王)으로 추존되었다. 삼국통일의 주역인 김유신은 흥덕왕 때 '흥무대왕'으로 추존되었다. 그는 왕이 아닌 이가 '대왕'으로 추존된 유일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가야의 왕족 출신의 후예로서 사후에 왕위에 추존된 유일한 인물이 되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신라의 대들보이자 수호신이 된 그를 신라 왕실은 '무(武)의 존재감을 크게 부각시킨 위대한 왕'(興武大王)으로 추존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참고문헌

- 권상로 역주, 『삼국유사』(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 신호열 역주, 『삼국사기』(동서문화사, 1978; 2010).
- 역사스페셜, 『김유신은 왜 천관녀를 버렸나』, 고영선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한지백팔사경 5종※

26호 신묘장구대다라니(한글)

27호 반야심경(한문)

29호 줍부다라니(한글)

30호 반야심경(한글)

28호 대불정능엄신주(한글)

※ 26, 27, 29호, 30호는 사경책 1권을 사경하시면 108번 사경이 됩니다. 단, 내용이 많은 28호 능엄신주사경책은 4장 1조로 구성되어 책 1권에 27회 사경할 수 있으므로 총 4권을 사경하셔야 108번 사경이 됩니다.

판매가 14,000원(10권 이상) 정가 20,000원(1권)

• 내지: 한지 108장 • 표지: 레저크지 울렛 4'

• 제본: 한장본 실재본 • 크기: 435mm×300mm

종이영가옷 / 예수재함 / 종이신발

B형-남 정가 1,300원

B형-여 정가 1,000원

동남 정가 1,000원

동녀 정가 1,000원

수자영가옷 정가 900원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금강경탑다라니 정가 250원

예수재함A(50개 1박스) 정가 50,000원 예수재함B(50개 1박스) 정가 60,000원

금강홍신경 600조 @200원 대량주문시 전화주세요 막대제등램프(분홍/면두) 100개이상 @4,500원 정가 6,000원

종이신발(남/여) 1켤레 정가 1,300원 한지접은 영가옷/위패 정가 30,000원

100개이상 할인가 1,300원 정가 1,600원 영가 /방수등표대 정가 35,000원

• 비닐+등표+집게 • 9.6cm×22cm • 100대 • 250SW

믿음과 정직의 산실!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연등 할인가

- 공단등(6cm) @2,700원 (50개이상)
- 공단등(8cm) @3,300원 (50개이상)
- 공단등(10.5cm) @6,000원 (24개이상)
- 공단등(13cm) @12,000원 (12개이상)
- 공단등(20cm) @35,000원 (4개이상)
- 바림등(6cm) @2,700원 (50개이상)
- 바림등(8cm) @3,300원 (50개이상)
- 바림등(10.5cm) @6,000원 (24개이상)
- 바림등(13cm) @12,000원 (12개이상)
- 바림등(20cm) @35,000원 (4개이상)
- 공단·바림 칼라등(30cm) @90,000원
- 비닐만월등(100개) 160,000원 (1Box)
- 연화만월등(100개) 240,000원 (1Box)
- 영가만월등(100개) 170,000원 (1Box)
- 장만월등(100개) 200,000원 (1Box)
- 청사초롱등(100개) 270,000원 (1Box)
- 비단 접등(10.5cm) 340,000원(100개)
- 비단 접등(12cm) 350,000원(100개)
- 종이주름등(200개) 160,000원 (1Box)

방수전선(한줄50구)
23cm / 25cm / 30cm | 50cm 1m / 2m
5줄이상 @ 65,000원 기타주문생산

LED전구 105,000원[국산]
1BOX : 50개
색상 : 초분색/주황색

봉축카드[21종] @300원(1,000장 이상)
구성 : 봉투, 내지 인쇄포함
내지 : 18.5×25.6cm
봉투 : 19×13cm

연일(일반/바림/신칼라천) 5,500원/7,000원/25,000원
면발/진발/노발/주황
빨강/녹색/흰색

집게부착PVC등표 20,000원(100개)
크기: 8.5×21cm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 (051) 515-2988, 555-1087, 508-9377~8 FAX. (051) 508-0101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드라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 121068-56-042256 ◆국민은행: 9011-554-2988 [예금주: 강태규]